

교회 3대 목표

- 1. 천국일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히 차고 네 습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 3장 9-10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 신문사 소석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54-1615

오늘은 맥추감사주일

첫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이라”(출 2
3장 16절)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다.
국내 교회뿐만 아니라 전세계 교회가 이날
을 지키며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친다.
맥추절은 이스라엘인들이 지킨 3대절기
중의 하나로서 칠칠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불린다(출 34장 22절).
칠칠절은 본래 수확제였다.
밀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특별
한 축제일을 지칭하는 것이나 실제적으로는
처음 보리 벨 때부터 시작해서 밀수확을 끝마
치는 약 7주 가량의 전체 곡물수확기간을
말한다. 이 전체기간은 특별히 거룩한 절기로
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비와 농사의
풍작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생각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비록 보리·밀 수확은
직접 수확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족한 생활의 여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맥추절 감사헌금을 드리
는 순서를 갖는다.

대학부 전도대 파송 경기도 내오리교회로

교회학교 대학부(부장: 이훈장로)는 지원교
회인 경기도 용진군 영흥면 내오리에 소재한
내오리교회(박순일목사 시무)에 전도대를
파송기로 했다.

오는 17일부터 3박4일간 특별전도 및 여름
성경학교를 실시할 예정인데 지도 김해규목
사 인솔하에 교사 2명, 학생 8명 등 11명이
봉사할 예정이다.

김장근·김준태 목사 사임 두분 모두 개인사정으로

본교회 5교구 담임과 소년부지도 교역자인
김장근목사와, 4교구 담임 세계선교회 지도
교역자인 김준태목사가 개인사정으로 지난
6월22일자로 사임했다.

하절기(7, 8월) 구역예배 구역형편따라 자율적으로

교구위원회(위원장: 우기전장로)는 하절기
(7, 8월)에 구역심방은 종전과 같이 실시키로
하되 구역예배는 해당구역의 형편에 따라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각 교구와 구역은 이점 유의하여 주길
바라고 있다.

89년 6월 성례식 학습, 세례 등 89명

교회는 89년 6월 성례식을 지난 21일 거행
했다.

이번 성례식에는 학습 29명, 세례 35명,
유아세례 22명, 개종 3명 등 모두 89명이다.

▲ 세례자 명단

(남자) 하상구, 김재일, 김동석, 김찬원,
김오자, 이현국, 이경연, 홍성진, 광광섭,
김종대, 노규식, 김용현, 안종성, 김길희,
이정일, 홍성욱, (여자) 장문희, 심용자, 황민
자, 김희성, 최명남, 박선예, 김수영, 김봉
옥, 고기순, 박숙희, 김분선, 이순옥, 김학
천, 신경순, 옥경미, 이소명, 김은주, 정영
희, 공경옥.

▲ 유아세례자 명단

(남자) 김지현, 김명현, 남윤필, 임무현,
김서운, 정석호, 이재성, 이재영, 김정훈,
류정훈, 이재현, 정찬영, (여자) 송인애, 고세
은, 노하은, 박진희, 유선영, 김한나, 김성
은, 이진아, 송예슬, 김성미.

▲ 개종자 명단

(여자) 이봉녀, 하옥순, 지선미

다음호부터 지상강단 이종윤목사 수요성경강해 게재

그동안 본보 2면에 게재되었던 지상강단은
이번 호로 각 교구 목사들의 설교는 끝났고
다음호부터는 이종윤 위임목사의 수요예배
성경강해가 실리게 된다.
많은 애독을 바란다.



▲ 시흥성대행진 승전감사예배가 지난 6월25일 오후7시 본당에서 있었다.

카메라초점



▲ 교회학교 장로2부 교사들이 강원도 심신장애자 재활원을 찾아
지체부자유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개인별 교수법에 대한 자기진단 및 모델발체”

교회학교 유년부 교육평가회 갖고 개선점 토의

교회학교 유년부(부장: 윤성철장로)는 2
/4분기 교육평가회를 지난 6월26일(월) 오후
7시 칼빈홀에서 가졌다.

금년들어 두 번째 실시된 동 교육평가회는
유년부 자체 교육진반에 관한 교육 평가와
개선점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로서 그 의의가
자못 컸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각 그룹별로 토의가
진행되었는데, 제1그룹은 ①신입생관리 및
등반 후 관리, ②개인별 교수법에 대한 자기
진단 및 모델발체, ③그리고 예배 및 분반공
부 장소의 효율적 사용방안 등이 다루어졌
다.

제2그룹은 ①예배분위기, 준비찬송 2부
순서의 개선점, ②문제아동에 대한 대응방
안, ③교사 봉사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이
다루어졌고, 제3그룹은 ①교사 및 학생의
출석률 향상방법, ②교사 재교육에 대한 필요

성과대책에 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을 토론했
다.

교회교육연구 위 제7차 모임가져

교회교육 연구위원회 제7차 모임이 지난
6월30일 오전7시30분 선교관 305호실에서
개최되었다.

동 모임에서는 교회학교가 사용할 공과
(교재)편찬을 위한 계속적인 모임이다.

이날 참석자는 이영덕박사를 비롯하여
오인탁박사, 정규남박사, 주선애교수, 이종윤
목사, 윤용규목사, 김영구목사, 김성윤목사
등이다.

본교회 김영삼장로 소련방문 보고특강

본교회 김영삼장로(통일민주당총재)가

지난 6월1일~10일까지 소련을 방문하여
주요인사들을 만나면서 한편으로는 그곳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시사해 보기
도 했다. 그는 지난 주일(6월25일) 세계선교
회가 주관한 특강 “모스크바를 다녀와서”의
강연에서 “타시겐타의 집단 농장을 방문해서
그곳에 우리말 성경 20권, 소련어 성경 30
권을 전했다.”고 말하고, “현재 소련엔 교회
다운 교회가 없거나 종교문제를 전혀 인정하
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관련특강요
약 3면 참조)

원고모집 주간충현 편집국

「주간충현」은 성도 여러분들의 원고를
언제든지 접수합니다.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모든 내용을 투고
해 주시면 정성으로 편집 게재해 드리겠습니
다.

지상강단

본문 / 고전 4:14~21

고린도는 로마제국의 4대 도시안에 들 만큼 대도시였으며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또한 동서 교통의 요지였으며 상업과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부패와 도덕적 타락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도 극심한 곳이었습니

다. 바울은 바로 이곳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 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자 교회는 주변의 풍조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음란이 밀려 들어오고 우상숭배가 판을 치고 세상의 학문 과 지혜가 말씀보다 더 권위를 차지하게 되었 습니다. 또한 거짓 스승들이 많이 나타나서 교인들의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교회를 향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면서 책망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아버의 역할은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 보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삼아야겠습니다.

1. 복음으로써 그들을 낳았습니다.

영적인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말씀 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뱀전 1:23에서는 "너

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 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킨 아버 였습니다. 이 아버지께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수고와 희생의 땀이 있었습니

다. 오늘의 문제는 아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아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의 아버가 되지 못한다면 자기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상황은 더욱 어려워만 갈 것입니 다.

"아버가 되자"

"아버의 심정으로 헌신자들이 많을 때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문제 해결돼"

2. 그들에게 사랑을 쏟았습니다.

어린 생명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 나야 합니다. 말씀은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 서 전달될 때에 비로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 다. 사랑이 없는 권면은 비난으로 들릴 것이 며 사랑이 없는 책망은 아픈 상처를 더욱 키치게 할 뿐입니다. 사랑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자기 희생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랑이 있을 때 믿음의 자녀 들은 성장하며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3. 인격의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합니 다. 그러나 이런 신자들은 그분의 형상을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다만 신앙의 아버된 자들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아버된 자들이 그들의 신앙 인격 안에서 그리 스도를 보여주지 못할 때 오늘의 젊은 세대,

초신자들은 방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16절)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신앙인격의 그들로써 자기 주위를 덮을 수 있는 아버가 되어야겠습 니다.

4.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식을 세속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



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새 생명을 키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매마른 사막과 같은 오늘의 상황을 보십시 다. 모든 가능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 고 하나님의 심정 곧 아버의 심정으로 헌신하 는 자들이 많아질 때만이 교회와 사회의 문제 가 해결될 것입니다.

김해규(목사, 1교구·대학부지도)

충현프리즘

☆ 2교구일군들 아파트에「주보」배포

2교구(교구장: 김원선장로, 지도: 김학진목사, 김주아전도사) 일군들(부지역장 및 구역장)은 매주 교구 산하 각 아파트를 돌며 주보 2,000부를 배포하고 있다.

처음「주보」를 배포할 때는 각 아파트 경비들의 출입통제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이 많았지 만, 이제 요령도 생기고, 경비들에 게도 친숙한 대화를 통해, 이제는 부담없이 배포할 수 있음을 어느

구역일군은 실토한다.

「주보」를 통한 축복전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 조직상의 명칭한계 문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인간들이 회집하는 곳이므로 질서를 위해서 는 행정상 조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당회나, 제직회 그리 고 교회학교나 남여전도회 등이 하나의 본보기가 된다.

그런데 이런 조직체계에서 회장 단, 혹은 임원, 또는 임역원은 누구를 지칭하느냐에 혼선을 빚을 때가 있다.

통상규례에 의하면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이며,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국한 하고 있다.

그리고 임역원을 지칭할 때는 임원에 속한 사람들과 각분과 위원회 위원장 및 차장이 여기에 속하게 된다.

☆ 광화문 지하도에서도「주간충현」배포

우리교회 유일한 주간신문「주간충현」이 교회 내에서만 배포되 는 것이 아니고, 국내교회 및 해외 교회, 그리고 서울에서 제일 복잡 한 광화문 지하도에서도「주간충 현」이 배포되고 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노방전도 차원에서 이러한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무척 기쁜 일이다.

☆ 세계선교지 현황판 설치 선교관 1층 오른쪽 벽에 본교회 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선교현황 을 표시하는 세계지도와 선교사명 단, 파송지역명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현황판이 제작되어 설치되었다.

이 앞을 지나는 성도마다 선교 사와 선교지를 위해 계속 기도하 는 열심을 갖자.

으로 위로했다.

이날 참석자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자"란 제목의 이원길목사 설교에 모두 은혜를 받고, 실재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돌아왔다.(관련사진 1면 카메라초점)

**「주간충현」편집국에
카메라·취재용 녹음기가
필요합니다.**

매주 발행되는「주간충현」은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편집되어 성도 여러분들에게 배포됩니다.

기사를 취재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일, 사진 을 찍고 설명을 붙이는 일, 지면구성과 편집 제작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에 감격한 신자들이 시간과 재능을 주앞에 헌신함으로 새로운 소식과 신앙생활에 유익 되는 신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하기엔 기본적 편집도 구가 필요합니다.

카메라가 있어야 하고, 취재용 녹음기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뜻이 계신 분은「주간충 현」편집국장 손경수장로에게 연락을 주십시 요.

※전화 554-1615번 혹은 교환 416번
1989년 7월 1일

「주간충현」편집국

미니화제

두번째 국내서 피아노독주회 갖는

충현교회 출신 김애리씨

7월 7일 오후7시30분 호암아트홀

우리 충현교회 주일학교 출신인 김애리 씨가 오는 7월7일(금) 오후7시30분 호암아 트 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다.

현재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애리는 경기여고 재학중 도미하여 Southern Illinois University(학사, 석사)와 Julliard School of Music(석사), Stony Brook 뉴욕주립대학(음악연주박사)을 졸업 했다.

Music Teachers National Association 과 American Music Scholarship Association 주최 콩쿨과 인디애나주 Rosanna M. Enlow 콩쿨 등에서 입상한 그는 서울 시향, St. Louis Youth Symphony, Stony Brook Chamber Symphony Orchestra 등과 협연하였으며 Gina Bachauer, Arthur Rubinstein의 Master Class, 뉴욕 롱 아일랜드의 베토벤 페스티벌에서 연주

하였다. 또한 St. Louis Arrist Presentation 주최로 독주회를 개최했으며 국립극 장(귀국 독주회), Carnegie Recital Hall 에서 독주회를 개최하여 많은 호평을 받았 다.



▲ 재미 피아니스트 김애리씨

이날 연주곡목은 L.v.Beethoven/Sonata in C Major, Op. 2, No. 3. Allegro con brio, Adagio, Scherzo-Trio, Allegro assai 의 「리스트」 「슈만」 곡을 연주한다.

심신장애자 방문위로 교회학교 장년2부에서

교회학교 장년2부(부장: 윤인현장로)는 지난 6월24일 강원도 춘성군 신북면 산천리 소재 심신장애자 재활원(원장: 홍우열장로)을 방문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했다.

지도 이원길목사와 부감 이하영집사, 우순 성권사 및 교사 20여명은 교회보조와 교사들 의 정성어린 헌금으로 과일 및 다과 등을 마련하여 이곳에 수용되어 있는 지체장애자 와 정신박약아 110여명에게 그리스도의 이름

학원선교회 창립총회 7월9일(주일) 오후3시 전도위원회실

전도위원회(위원장: 윤종성장로)는 오는 7월9일 오후3시 선교관 4층 전도위원 회실에서 학원선교회 창립총회를 갖는다.

본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으로서 초·중·고 교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으며,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전도위원회(전화 351, 406번)로 연락을 바라고 있다.

은혜의 성회 「시온성대행진」을 모두 끝내고

너무도 좋은 믿음의 체험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 되자는 캐치 프레이즈(Catch Phrase)를 걸고 15일간의 시온성대행진에 굳은 각오로 임했다.

우리 상도 전구역과 노량진, 흑석동 구역의 권사, 집사,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안준태 집사님의 헌신적인 봉사와 협조로 끝까지 이 행진의 대열에 동참하게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체험을 하게 하시고 예배와 충현식구들간의 교제를 통해 은혜의 시간을 갖게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

밤잠을 설치가며 서로 전화로 깨워서 권고하고 독려하며 매일 새벽 30~35명의 구역식구들이 갈급한 심정으로 성전을 향해 달릴 때 그 흐뭇하고 뜨거운 심정은 오직 주님의 은혜 속에서만 이루어지리라 믿어진다.

우리 구역식구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다함께 참여하여 우리의 단합됨을 보였고 충현의 가족임을 새삼 확인케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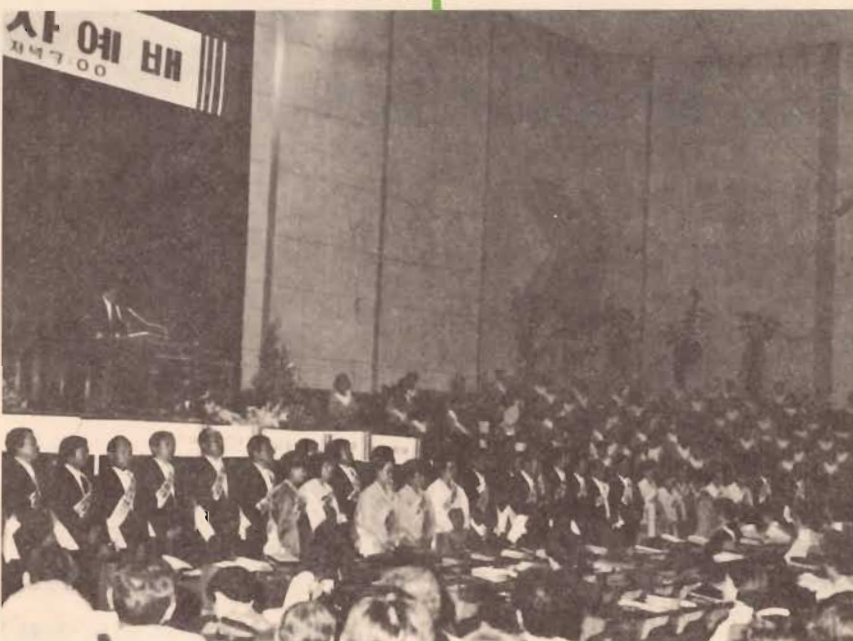
믿음이 없는 저와 저희 가족들이 이 행진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다져지기를 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함을 주님께 용서와 자복코자 한다.

이미 흥행작전과 여러고작전을 통하여

과 김정순전도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제 믿음의 떡까지 받은 우리들에게 변화를 주셔서, 뜻이 계시고 원하시는 일이면 불가능을 가능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만과 자만으로 가득했던 지난 날들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줄 다시 한번 깨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린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중에 우리를 위해 차량을 제공하고 봉사하신 안준태 집사, 김영



▲ 승전감사에배시 모든 참모들이 나와서 15일간의 행진상황을 보고했다.

느낄 수 있었던 행진이었습니다.

축복받은 우리 구역은 새벽 단잠을 설치가

축복받는 우리구역

이번 시온성대행진은 퍼내고 또 퍼내고 차고 넘치는 맑은 샘물처럼, 듣고 또 들어도 새록새록 은혜속에 빠져들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 되려고 새벽의 단잠을 깨우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오는 하나님 자녀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성숙해가는 신앙을

며 심신의 피로도 잊은 채 행들을 잡으신 권사님 아드님의 손길 덕분에 더욱 은혜로운 행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늘으신 어머니께 효도하시고 날마다 모든 돈암구역 식구들에게 전화를 하며, 교회로 향할 때는 골목골목에서 차를 세우고 교회로 가시는 걸음이면 한 분이라도 더 태우려는 훈훈한 마음이 있었기에 은혜롭고 즐거운

성숙한 신자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

시간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여중생은 믿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행진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은혜를 받으라고 차창을 통해 커피를 넘겨주시던 권사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영생을 맛보며 주안에 살리라..." 찬송부르는 남자 성도의 모습 속에서 제 자신도 덩달아 은혜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진기간 동안에 차량을 운행하신 손길에 작은 정성을 모아 물질을 건네주었을 때의 따뜻함과 정다운, 그리고 신선한 새벽공기를 마시며 돌아오는 차 속에서 성도들 간의 대화속엔 기쁨이 넘쳤고, 마지막 날에는 다함께 시온성대행진의 승전감사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바라옵기는 나혼자만 은혜받아 가슴속에 새기지 말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과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성숙한 신자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김양자(권찰·돈암1구역)

습니다.

앞서 말했던 타시겐타市的 병원에 있는 의사 중의 70%, 유치원 교사 중의 40%가 한국인이었으며, 집단농장에 있는 2만명 중의 33%가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성경에 대하여 듣거나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시겐타市的 시장을 방문-"김치 시장"이라고 하며, 여기엔 한국인만 살고 있다.-했는데 그 아주머니들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였습니다. 그분들이 김치를 싸주시고, 꽃다발을 안겨주었을 때는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정신은 소련사람이었으나, 그 가슴은 분명히 자랑스런 한국인이라고 느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500만 가량의 한국 동포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영토에서 밀알이 된다면, 이 마지막 때에 한국은 크게 쓰임받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믿어 집니다.

제가 출국한 이후에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로 도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김영삼장로

오만과 자만으로 가득했던 지난날들
이젠 회개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돌려

제1의 영적 각성을 주님께 다짐한바 있고 또 충현올림픽을 통하여 단합된 몸과 마음으로 이 행진에 우리 구역식구들이 참여하였고, 이 행진을 통하여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새벽기도회에 참여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구역식구들에게도 임하셨을줄 굳게 믿는다.

이 열기가 식지 않도록 계속 권면하고 심방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고 결속을 다짐하면서 한결같이 우리 6교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구목사님

관집사 부부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이 시온성대행진을 통하여 제2의 영적 각성으로 교회가 갱신되고 복음화된 조국통일을 이룩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 각 개개인이 거듭나고 갱신되므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어수덕(권사·상도1구역)

특강요약

모스크바를 다녀와서



“교회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탁했으나, 주일엔 문을 열지 않는다고.”

저는 지난 6월 1일 출국해서 동경을 경유하여 소련에서 9일간 체류했습니다. 소련에 거주하고 있는 40만의 교포 중에

20만이 타시겐타시에 살고 있으므로 그곳엔 반드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소련에 갔던 가장 큰 목적은

가 없거나 종교 문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포들도 제가 가갔던 성경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다는 것이었

교회기관 소개 ⑦

영어예배부

우리 교회는 독특한 부서인 영어예배부(부장: 정하우장로)가 있다.

매주일 오전9시~10시까지 본당 1층 갤러리홀에서 영어로 예배를 드린다.

모든 예배순서가 모두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예배부는 지난 88년 8월28일 주일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1백30~1백40여명의 성도가 참석한다.

매주 외국인은 20여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영어를 할 줄 아는 내국인 중 대학생 이상의 교우 1백여명이 같이 동참한다.

예배의 특성은 일반 주일예배와 동일한데, 예배이후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는 리셉션이 있고, 매월 마지막주일에 생일맞은 자를 위하여 축하케이크를 자르는 특별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또 별도의 사업계획으로는 1년 2회 외국인 학생초청 특별집회를 갖고, 7월부터는 성경공부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는 9월부터 영어교회학교 유년부와 장년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있고, 찬양대에서 봉사할 남성 찬양대원

의 많은 참여를 원하고 있다. 또 단기 및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주말에 강남지역 내의 호텔 등지를 찾아가 영어전도

현재 영어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스태프들은 다음과 같다.

(목사) 윤영탁, (담당지도) 마일수, (장로)



▲ 영어예배를 돕고 있는 사역자들.

모든 순서가 영어로 진행 앞으로 교회학교 유년부·장년부 신설 위해 기도 중

자를 배포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특pecially 교회에 바라고 싶은 것은 외국인들이 불편없이 영어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서클버스를 운행해 바라고 있다.

정하우, 윤인현, 김진채, (권사) 안춘진, 김순, (집사) 이부성, 이호연, 이수철, 정홍식, 김상규, 정홍환, 장충균, 남정애, 김정애, 이정애.

교회학교 각부서 7월 행사계획 승인

교육위원회는 산하 각부서의 7월 행사를 승인했는데 부별 행사명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예정 일자)

▲ 영아부(부장: 차신득장로)-교사철야 기도회(16일), 여름성경학교(24-25일), 학부모 교육(24일), ▲ 유치부(부장: 정광호장로)-교사특별기도회(12일), 여름성경학교(24-26일), ▲ 유년부(부장: 윤정철장로)-초청전도잔치(2일), 여름성경학교(24-26일), 세친구 환영회(30일), ▲ 초등부(부장: 최성현장로)-2학기 학습평가(2일), 충전도집회(8일), 철야기도(18일), 여름성경학교(24-26일), ▲ 소년부(부장: 노문환장로)-초청전도(2일), 2학기 학습평가(9일), 노방전도(9일), 교사철야기도회, 여름성경학교(수련회), ▲ 중등부(부장: 엄필성장로)-2학기 학습평가(2일), 여름수양회(26-29일), ▲ 고등부(부장: 최무길장로)-여름수양회(26-29일), ▲ 대학부(부장: 이훈장로)-여름수양회(10-13일), 여름전도대 파송(24-29일), 선교지원교회 여름성경학교 개최(17-20일), ▲ 청년1부(부장: 윤광일장로)-초청전도집회(2일), 교사기도회(6일), 여름수양회(16-19일),

구역예배를 위한

충천다락방

1989년 7월 7일(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27과 올바른 예배

성경: 요한복음 4:20-26

요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찬송: 23, 27, 50장

신앙생활의 핵심적 요소는 바로 예배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1.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라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의 대상을 향한 예배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첫째 하나님을 형상으로 전락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십계명 중 제2계명에서 아무 형상이든지 금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것이다. 예배의식과 형식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주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하나님은 한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다.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나 유대의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아니하시고 어떤 건물이나 사물, 산, 지방에 얽매이지 아니하신다. 언제 어디서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배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헌신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열납되는 영적 예배인 것이다. (롬 12:1)

(2)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 예수께서는 '내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 10:38)라 하신 바,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되시는 사실을 나타내셨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영이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2. 예배의 방도를 바로 알라

(1)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며서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모세시대에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다. 저들은 어느 정도의 진리의 지식은 있었으나 구원 계시의 충분한 지식은 없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의 실상을 지적하신 것처럼, 저들에게 예배는 있었으나 진리와 지식이 결여된 예배였다. 아무리 진지하여 열정적인 예배일 지라도 올바른 지식과 내용이 없는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야 한다.

(2) 신령으로 예배드리라

"우리(유대인)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유대인들은 진리를 알고 있으나 신령함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병행하고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다. (마 6:1-8, 마 23장) 예배의식과 행위는 있었으나 마음은 담겨있지 아니하였고, 진리는 가지고 있었으나 심령은 메말랐다. 메마르고 생기없는 정통주의의 모습이다. 아무리 진리에 입각해 있더라도 뜨겁고 성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예배임을 알아야 한다. 이같이 신령으로 예배드리려면 성령의 감화안도 받으면서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어지, 아니한 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열리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

함께 생각합시다

1.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2.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드린다는 뜻은 무슨 것인가?
3. 하나님께 열납되는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시 24:3-4)

공동기도문

존재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보혈로 구속하신 저희를 인도하시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열납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조명과 감동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감화와 역사를 힘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